

[1923제노사이드 在日네트워크] 출발을 축하하며

안녕하십니까?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의 김종수 대표입니다.

직접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그리되지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한국에서 간토제노사이드에 대한 역사를 알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 법안까지 올렸습니다만, 아쉽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대 국회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 싶었지만 2023년이면 사건발생 100주기를 맞는데, 역시 일제식민지하 미청산과제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 거는 기대는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어 관련단체들과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희생자 명단을 전달하고 조속한 유족찾기사업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내고 면담을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답보상태이고 조만간 선거를 앞두고 장관교체를 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있어, 이 또한 불투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일제하에서 자행된 식민지범죄의 진상규명이 국가적 차원에서 참으로 힘겹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동안 량대룡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사무국장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면서 1923제노사이드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 在日, 일본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축을 만들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7년 11월 도쿄에서 강덕상선생, 금병동선생, 야마다쇼지선생님과 같은 여러분을 모시고 [간토조선인학살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를 조직하여 몇 년간 긴밀한 연대활동을 하였으나, 재일의 한 축이 휘청거리면서 일본에서는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으로 한국에서는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가 조직되어 연구와 실천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활동과정은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在日코리안들이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 한국 조선 정부에 역사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위안부문제가 한일과거사의 핵심쟁점이 되어오다 최근 강제연행문제가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역사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일코리안의 차별과 억압의 원점이 된 1923년 간토제노사이드가 한일의 쟁점으로 부각되어오지 못한 데에 활동가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마치 제가 일을 잘 못해온 것처럼 생각되어 6천여 영령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23제노사이드在日네트워크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기억과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관을 설립하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곳과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천안 병천 아우내 재단

에 건물을 간토제노사이드역사교육관으로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무척 가난하기 때문에 힘겹게 이 일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있는 원폭자료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카마사하루평화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차이처럼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의 아픈 역사를 전시하고 싶습니다. 간토학살역사관, 지쿠호오강제연행조선인역사관, 그리고 우베탄광조선인수몰역사의 진실과 그 진실을 알리는 이들의 역사까지 담아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한일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땀과 눈물을 차세대들에게 교육하고자 합니다.

남북의 평화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서 조선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꿈을 꾀 봅니다. 역사관은 간토사건발생 100년이 되는 2023년까지 계속 보완하며 만들어갈 것이고, 올 해 9월에 임시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둘째, 1923제노사이드在日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한신대학교와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가 저의 제안을 받아 [1923제노사이드在日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연구소 설립에 동참한다면 MOU를 맺어 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신대 총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923제노사이드在日네트워크]는 일본에 산재한 간토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과 정기적인 간토학살현장 스터디투어, 학살추도비 탁본을 협력하는 일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한국과 일본, 조선을 오가며 이 사건의 국가책임을 촉구하는 일을 함께 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가네코후미코와 박열의 영화가 주요도시에서 상영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매진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저는 일본에 갈 때마다 상영회를 하고 싶었으나 우익들의 난동이 일까 염려되어 주저하고 있었었습니다만 이는 간토문제의 저변확산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진상규명과 추도활동을 해오고 있는 시민들의 노력을 더 많이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일동포들 특히 조선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이신 청년상공인회들에게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가 하고 있는 일을 많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량대룡사무국장도 묵고 가신 천안 아우내 게스트하우스는 여러 분들이 오시면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역사기행을 하시거나, 민주화운동을 해 오신 분들과의 만남도 주선해 드립니다. 서로 자주 오가면 평화와 민족의 하나됨은 그 시기를 많이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보다 긴밀한 만남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모임이 결성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천안 아우내(竝川)에서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드림